

뿌리ISC

방위산업 활성화 대응, 뿌리산업 직무단위 인력수요 도출



조직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기업에서는 3P를 언급합니다

3P란?

People = (핵심)인재

Process = 업무(관리)체계

Product = 제품·기술(최종 결과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차와 자주포 등을 폴란드로 수출하는
대형계약이 성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3P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방산수출국 세계 'BIG 5' 진입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올해 100억 달러 수출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성공 요인은 가격 대비 성능, 사후관리, 적극적인 수주전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방위산업의 역량은 이제 선진국에 견줄 수준에
도달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위산업 인력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재육성

정부통제형 → 기업자율형



방위산업 인력 현황은 어떨까요? (대기업)

지난해 국내 대기업 기준 방산업체 직원 수는
2020년 대비 2.3% 증가한 1만 44명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방산 3사>

한화시스템 3,748명, LIG넥스원 3,124명, 현대로템 3,172명

방산업체들은 올해도 호실적이 예상되며,
앞으로 전투용 차량 및 위성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분야는 물론
신사업 연구개발(R&D) 분야 인재 육성과 영입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방위산업 인력 현황은 어떨까요? (뿌리기업)

**방산 관련 벤더 형태 뿌리기업의 수와 규모는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역시나 직원 수가 늘고 인재 육성과 영입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이에,
2022년에 정비된 뿌리산업분야 역량개발체계도에
근거하여 주요 직무에 대한 수요를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정리해봤습니다!



뿌리산업 직무기반 방산분야 인력수요

(수도권·동남권 뿌리기업 100개사 대상 설문조사)

금형분야

- 금형설계 5명, 금형제작 8명, 금형가공 10명, 금형품질관리 4명
- 코로나19 이후 규모가 준 상황에서 적정량의 발주와 수주 의지로 타업종 대비 인력수요 크지 않음

금속가공 분야

- 단조압출인발 17명, 열처리 21명, 주조 18명, 판금제관 13명
- 타업종 대비 인력수요 높음

단조압출인발

- 기능공 위주 인력수요 꾸준히 늘어날 전망

열처리

- 20명 이상
-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전 무기 관련 제품 및 함정과 함정에 소요되는 부속부품 등 꾸준히 생산소요



뿌리산업 직무기반 방산분야 인력수요

(수도권·동남권 뿌리기업 100개사 대상 설문조사)

주조 및 판금제관

- 20여 명
- 폴란드 방산계약 이후 원청기업 발주·수주에 따른 인원

용접분야

- 피복아크용접 18명, MAG용접 24명, MIG/TIG용접 19명, 로봇용접 5명, 저항용접 20명
- 방산제품에 필수로 포함되는 용접업종 특성상 타업종 대비 인력수요 높음
- 함정 제작에 활용하는 조선 용접도 포함되지만 금속가공 관련 연계한 산업설비 용접이 주를 이루며, 이중 이동장치 연계 저항용접 직무 수요 증가

표면처리 분야

- 도금 13명, 금속도장 22명
- 방산제품에 필수인 표면처리의 중요성 감안하면 꾸준히 수요 증가 예상
- 직무수행 난이도로 신규입직자와 이전직 규모 적어 환경개선 수반되면 타업종 대비 임금 높아 입직자 규모 확대 및 인력유입 지속 전망
- 용접업종과 달리 학교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의 교육과정 체계화 미비



그러면,

**방산산업 활성화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확보방안은 무엇일까요?**



뿌리산업 방산인력 확보방안

하나, 정부주도의 발전적 선순환 생태계 조성

- 무기체계별로 체계기업 중심 1차부터 N차로 이어지는 벤더업체인 뿌리기업과 조달·납품, 개발시기의 R&D, 부품과 부분품 생산·수출 등 전 과정 긴밀히 협력
- 신규 방산품의 소요제기부터 정책정보·기술정보 제공
- 방산산업을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통해 산업구조 선순환 형성

둘, 대기업과 상생을 위한 뿌리기업 육성

- 대부분 뿌리기업은 기술·자금·정보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력 취약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절실
- 방산 분야는 대기업인 체계기업과 상생발전 위한 협력 중요하므로 뿌리기업과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기업 주도로 발굴·진행하는 여건 필요
- 방산 뿌리기업은 대기업과의 상생발전, 부품·부분품의 국산화 주력해 기술력 제고



뿌리산업 방산인력 확보방안

셋, 수출형 산업구조 형태로의 정착

- 국내 방위산업은 다른 제조업 대비 산업비중 미미하고 거의 100% 대기업 영향 받아 글로벌 위상 낮지만 국내방산시장 포화로 글로벌시장에서 기회 모색 필요
-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우수한 국내 제조업 기반으로 글로벌시장 잠재력 보유하고 있으며, 뿌리기업은 수도권·동남권 지역별로 전국 최고 수준 집적
- 국가적으로 지역단위 방위산업 분야 뿌리기업 수출 지원

넷, 전문인력 양성 공급

- 제조 분야 뿌리기업의 당면문제는 적절한 수준 인력 확보와 전문 지식·경험 인력 확보의 어렵다는 점
- 지자체·지역대합 협력 지역 방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배출 노력 확대 필요
- '기능·기술 수준 전문인력' 양성 위한 각종 인력양성 기능과 '기술·고급 수준' 전문인력 양성 위한 지역단위별 유관기관 전문인력·시설 활용하여 지역 소재 대학·대학원이 기업체 의뢰 재직자·우수인력 대상 위탁교육 지원
- 기업 중심 업무 공백 최소화 범위에서 위탁기업과 협의된 학습내용 교육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

